

# 메시가 그림다...바르사의 몰락

## 뮌헨에 0-3 패배...17년만에 챔스리그 조별리그 탈락

스페인 프로축구 '위기의 명문' FC바르셀로나가 18년 만에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토너먼트 진출에 실패했다.

바르셀로나는 9일(한국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1-2022 UCL 조별리그 E조 마지막 6차전에서 바이에른 뮌헨(독일)에 0-3으로 완패했다.

2승 1무 3패(승점 7)에 그친 바르셀로나는 이날 디나모 키예프(우크라이나)를 2-0으로 제압한 벤페라(승점 8·2승 2무 2패·포르투갈)에 승점 1 뒤진 3위에 머물러 UCL 16강이 아닌 UEFA 유로파리그 토너먼트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됐다.

UCL 통산 5회 우승팀인 바르셀로나가 이 대회 토너먼트 진출에 실패한 것은 2003-2004시즌 이후 18년만의 일이다.

당시 바르셀로나는 직전 시즌 정규리그 6위에 그쳐 처음부터 UCL이 아닌 UEFA컵(현 유로파리그)에 출전했다.

바르셀로나가 UCL에 출전하고서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것은 2000-2001시즌 이후 21년만이다.

또 바르셀로나는 재정난에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와 계약하지 못해 그를 파리 생제르맹(프랑스)에 떠나보내고서 맞은 첫 시즌 UCL 조별리그 탈락의 쓴맛을 봤다.

이미 조 1위로 16강 진출을 확정할 상태였던 뮌헨은 6전 전승(승점 18)으로 조별리그를 마쳤다. 뮌헨은 전반 34분 만에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의 크로스에 이은 토마스 뮐러의 문전 헤더로 앞서 나갔다.

9분 뒤에는 리오네가 약 30m 거리에서 때린 기습적인 왼발 중거리슛으로 추가골을 뽑았다.

이어 자발 무시알라가 후반 17분 알폰소 데이비스가 왼쪽에서 넘겨준 킥백을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해 3-0 승리에 쐬기를 박았다.

H조에서는 유벤투스(이탈리아)와 첼시(잉글랜드)가 이미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할 가운데 최종전에서 승리를 챙긴 유벤투스가 조 1위로 조별리그를 마쳤다.

유벤투스는 전반 18분 모이스 킨의 결승골로 말뚝(스웨덴)에 1-0으로 이겨 승점 15(5승 1패)를 쌓았다.

첼시는 제니트 샤프테페데르부르크(러시아)와 원정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마고메드 오즈도예프에게 동점골을 얻어맞고 3-3으로 비겨 2위(승점 13·4승 1무 1패)가 됐다.

F조에서는 이미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잉글랜드)가 영보이스(스위스)와 1-1로 비겼다.

맨유는 조 선두(승점 11·3승 2무 1패)를 확정할 상태다.

어린 선수들로 선발진용을 짠 맨유는 전반 9분 메이슨 그린우드의 득점으로 앞서나갔지만, 전반 42분 파비안 리더에게 동점골을 내줬다.

랄프 랑니크 감독은 맨유 부임 뒤 치른 첫 UCL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9일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E조 6차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에 0-3으로 패한 FC바르셀로나의 오스카 미구에스(왼쪽)와 세르지오 부스케츠가 고개를 떨군 채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 여자핸드볼 8강 희망

### 세계선수권 체코에 32-26 승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유럽의 북병 체코를 꺾고 12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 8강 진출 희망을 이어갔다.

우리나라는 9일(한국시간) 스페인 그라노예르스에서 열린 제25회 국제핸드볼연맹(IHF) 세계 여자선수권대회 8일째 결선리그 3조 체코와 경기에서 32-26으로 이겼다.

조별리그 성적을 안고 올라와 치르는 결선리그에서 한국은 2승 1패를 기록했다.

6개 나라가 한 조로 치르는 결선리그에서 상위 2개 나라가 8강에 진출한다. 우리나라는 독일, 헝가리와 남은 경기를 모두 이겨야 8강에 오를 수 있다.

한국이 세계여자핸드볼 선수권대회 8강에 오른 최근 사례는 2009년 중국 대회로 6위를 차지했다.

올해 도쿄올림픽에서 유럽 팀들을 만나 4패를 당하고,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도 덴마크에 패하는 등 최근 유럽 국가를 상대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던 우리나라는 모처럼 체코를 잡고 남은 독일, 헝가리전에 대한 자신감도 얻게 됐다.

한국은 경기 시작 10분 만에 7-2로 앞서며 기선을 잡았고, 약 25분경에는 18-8로 10골 차까지 훌쩍 달아났다.

한국은 이미경(일부 오묘문)이 7골, 8도움을 기록했고 김진이는 8골을 터뜨렸다. 류은희(헝가리교리)는 4골, 5도움으로 팀 승리에 힘을 보탤었다.

정진희는 상대 슈팅 16개를 막아내며 방어율 38%(16/42)로 분투했다.

2승 1패로 조 3위인 한국은 10일 밤 11시 30분 독일을 상대한다. 우리나라와 독일은 2019년 일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만나 27-27로 비겼다. /연합뉴스



광주시체육회 임·직원들이 지난 8일 열린 '대학부 우수선수 장학증서 전달식에서 2038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와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카드섹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 광주시체육회, 안산 등 우수선수 장학금

### 12개 종목 선수 50명에게 전달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유치 기원도

광주시체육회가 육상 등 12개 종목 50명의 선수들에게 하반기 장학금을 지급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8일 김광아 광주시체육회장 직무대행 등 임직원과 사격 정소승(남부대 4

년) 등 우수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대학부 우수선수 장학증서 전달식'을 열었다. 장학금은 대학부 우수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하반기 장학금 대상자는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양궁 사상 최초로 3관왕이라는 위업을 달성한 안산(광주여대 2년), 올해 펜싱 사브르 국가대표로 선발된 김정미(호남대 3년), 제51회 봉황기 전국 사격대회에서 권총 개인 금메달을 획득한 정소

영, 제20회 회장기 전국대학검도선수권에서 2관왕을 차지한 이상승(조선대 4년) 등을 포함해 50명이다.

시체육회는 지난 8월 상반기 대학부 육상비를 각종 국내·외 대회 성적과 개인별 경기력에 따라 차등 지급했다.

시체육회는 이날 전달식에서 2038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기원하고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응원하기 위한 카드섹션 세리머니 행사도 열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2024 전남체전 개최지, 영광-구례 2곳 압축

### 도체육회 이사회 23일 최종 선정

제63회 전남체육대회 개최지가 영광군과 구례군으로 압축됐다.

전남도체육회는 9일 "2024년에 열리는 전남체육대회 유치신청 공고를 낸 결과 영광군과 구례군이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체육회는 도내 14개 군 단위 중 최근 7년 이내 대회 미개최 군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전남도체육회는 지난 2~3일 영광군과 구례군에 현장 실사단을 파견해 유치제안서 발표를 통한 유치 의지와 경기장 시설 등 11개 항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영광군은 2009년 제48회 대회 개최 이후, 2020

년 제59회 대회를 유치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년 연속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구례군은 2012년 제51회 대회 개최 이후, 2023년 제62회 대회 유치를 신청했으나 미 선정돼 다시 한 번 유치 신청을 했다.

도체육회는 영광군과 구례군을 대상으로 전남도종합체육대회 규정에 의거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오는 23일 개최되는 전남도체육회 이사회에서 개최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골프 황제와 여제의 귀환

### 우즈, PNC 챔피언십 출전...소렌스탐, 내년 US여자오픈 저울질

타이거 우즈(미국)가 필드 복귀를 결정하자 '골프여제' 소렌스탐(스웨덴)의 내년 US여자오픈 출전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우즈는 아들 찰리와 가족 골프 대항전 PNC 챔피언십에 출전한다고 9일(한국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렸다. 이 대회는 오는 19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리츠 칼턴 골프클럽에서 열린다.

우즈는 트위터에 "올해는 길고 힘겨웠지만 이겨내고 찰리와 이 대회에 출전하게 돼 설렌다. 아버로서 이 대회에 나서게 더할 나위 없이 기대되고 뿌듯하다"고 썼다. 우즈의 복귀는 지난 2월 두 다리가 모두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자동차 사고를 당한 지 10개월 만이다.

우즈의 복귀소식에 이어 소렌스탐의 거취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US 시니어 여자오픈에서 우승, 내년 US 여자오픈 출전권을 확보한 소렌스탐은 9일(한국시간) 미국 골프 채널 좌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US 여자오픈 출전 가능성을 내비쳤다.

내년 US여자오픈은 소렌스탐이 1996년 US오픈 정상에 올랐던 노스캐롤라이나주 파인니들스 골프클럽에서 열린다. 소렌스탐의 두 번째 US 여자오픈 우승이자 2년 연속 우승을 일군 곳이다.

사회자가 "필 미켈슨은 50세에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당신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지 않나?" 부추기자 소렌스탐은 "감사하지만, 속고할 사항이 많다"고 즉답을 피했다.

소렌스탐은 "미켈슨은 그동안 계속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를 뛰었지만, 나는 2008년 은퇴한 뒤 고작 2차례 미국여자프로골프



우즈 소렌스탐

(LPGA) 투어 대회에 나섰을 뿐"이라면서 미켈슨과 차이점을 설명했다.

또 소렌스탐은 "요즘 젊은 선수들 경기력이 워낙 뛰어나다. 내 내이 절반밖에 안 되는 그들과 겨루는 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소렌스탐은 "파인니들스 골프클럽은 셀 수 없을 만큼 자주 갔던 곳이고 내 마음속에 특별한 장소로 자리 잡은 곳"이라면서 출전을 저울질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소렌스탐이 내년 US 여자오픈에 출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좌담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2008년 US 여자 아마추어 챔피언인 아만다 블루먼허스트는 "내가 보기엔 소렌스탐은 내년 US여자오픈에 출전할 것"이라면서 "우승 경쟁은 어렵다 해도 컷 통과는 거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연애 빠진 로맨스
- 2관 유채이탈자
- 3관 유채이탈자, 돈 룩업, 고스트버스터즈 라이브
- 4관 돈 룩업
- 5관 연애 빠진 로맨스
- 6관 유채이탈자
- 9관 엔칸토: 마법의 세계, 리슨
- 7관 세네케를 마이 뉴욕 다이어리, 돈 룩업, 리슨, 장르만 로맨스
- 8관 세네케를 돈, 팬텀: 더 뮤지컬 라이브, 이터널스, 라스트 나잇 인 쇼호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특별기획공연  
**바리톤 김기훈 독창회**  
일시: 2021.12.13.(월)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5

GAC기획공연 포커스  
**어린이 무용 <루돌프>**  
일시: 2021.12.19.(일)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3